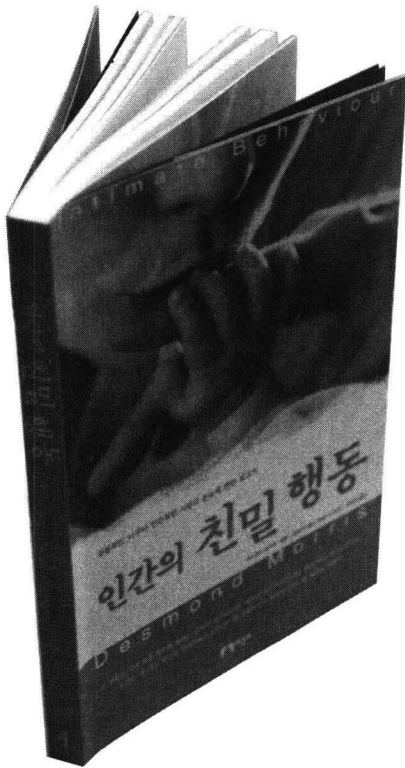


동물적인, 그러나 인간적인 사람의 본능을 해부한다!



《인간의 친밀 행동》
데스몬드 모리스 지음 | 박성규 옮김 | 지성사 | 336쪽 | 값 13,000원

● 이 글을 쓴 권오길은

서울대학교 생물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수도여중·고, 경기고교, 서울사대부고 교사를 거쳐 현재 강원대학교 생물학과 명예교수다. 제42회 강원도문화상 학술상(2000), 제13회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저작상(2002), 제4회 대한민국 과학문화상(2003) 등을 수상했고 '달팽이 박사'로 불리며 일반인들을 위한 대중과학의 친절한 전파자 역할을 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는 《꿈꾸는 달팽이》《바다를 건너는 달팽이》《인체기행》《달팽이》《생물의 애육살이》《열목어 눈에는 열이 없다》《바람에 실려 온 페니실린》《어린 과학자를 위한 몸 이야기》등 다수가 있다.

다행히 건강하게 퇴임을 했기에 여기저기 강의를 하고 또 이렇게 원고쓰기에 쫓긴다. 더없이 행복한 나다! 잠말이긴 하지만 누구에게나 무사히 퇴임하는 것은 정녕 행운이다. 퇴임동기 일곱 중에 셋은 먼저 저승가고 넷만이 무사히 정년을 했다. 때문에 퇴임을 축하하는 것이 의당 옳다. 주저주저 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두려움의 그림자가 언제나 마음 속에 드리워져 있다. 낙엽 지는 가을이라 그럴까? 봄은 여자의 계절이고 가을은 남자의 계절이라 했던가? 어머니의 따스한 손길, 머리 만짐이, 그리고 온기 풍기는 가슴 품이 그리도스럽다. 사랑이, 정이 무엇이기에 사랑 없이는 못 사는 것일까. 어디선가 '오길아!' 하고 어머니의 부름소리가 들려오는 듯... 포근하고 애뜻한 사랑이 그리워지는 것은 계절 탓일까. 게다가 자꾸만 죽음 생각이 달려드는 것은 웬지 나도 모를 일이다.

책이나 노래도 별수 없지 않은가. 베스트셀러 자리에 머물던 서책들도 뒷물에 밀려 퇴장退藏하며 자취를 감춰야 하고, 많이도 불렀던 베스트송도 어느 순간 잊혀진다. 흐르는 물이 어디 제 자리에 머물던가. 유수불식流水不居인 것. 고인 물은 썩지만 흐르는 물은 썩지 않는다. 그게 다 진화의 한 과정으로 바뀐다. 변화 없는 진화와 진보는 있을 수 없다.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왜 이렇게 허망한 소리를 되뇌는가? 지껄이고 뇌까리고 있담? 신세타령 치고는 한심하지 않은가. 다 까닭이 있다. 여기 소개하는 책, 《인간의 친밀 행동 Intimate Behaviour》의 저자 말이다. 데스몬드 모리스 Desmond Morris가 이렇게 허무한 마음을 일게 한다. 이 양반이 1928년생, 나보다 열두 살이 많아 살아 있다면 일흔여덟 살이다. 모리스가 날 많이 닮았다. 아니다, 내가 모리스와 비슷하다. 모리스는 영국 버밍엄대학 동물학과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동물학자다. 런던동물원에서 포유류哺乳類관장을 하면서, 방송을 통해(600회!?) 동물의 여러 행동, 습성을 알린 것은 물론이고, 수많은 논문에다 명저名著를 여러 권 남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이 읽힌 《털 없는 원숭이 the Naked Ape》《인간 동물원 The Human Zoo》《신체관찰 Bodywatching》《인간 행동학 Manwatching》들이 있고, 이외에도 부인 라모나와 같이 쓴 《인간과 뱀 Men and Snakes》《인간과 원숭이 Men and Apes》들이 있다. 예를 든 책 중에서 《털 없는 원숭이》는 뭘 말하는 것일까? 우리들은 예부터 사람을 '머리에 털 난 짐승'이라 말하는데... 맞다. 몸에 털이 없는 원숭이는 다름 아닌 인간이다! 머리에만 털이 가득 난 동물 역시 인간이고.

그런데 앞에서 왜 필자가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었을까? 오호

통째라! 그렇게 이름을 날렸던 모리스도 늙어빠지니 맥없이 골방지기가 되고 말지 않았는가. 욕심이 과한 줄 알지만, 명성이 자자했던 어느 누구도,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울음을 그치고 만다. 다 늙어 잡아먹히는 장닭 꼬락서니가 된다. 그것이 한스럽고 아쉽다는 것이다. 바로 나의 늙음을 닮고 있었던 것이로다! 오호 애재라!

《인간의 친밀 행동》을 들여다보자. 처음에 ‘접촉’이란 제목으로 출간했다가 재발간하면서 원명 ‘Intimate Behaviour’에 가깝게 개명했다. 옮긴이 박성규 씨는 번역과 집필을 많이 하는 분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의 추천사를 대학 은사님이 쓰셨다. 김준민 선생님은 금년 연세가 아흔 하나다. 이 어른께서도 한 때, 아니 오랫동안 여러 분야에서 날렸던 분이데 역시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다. 그게 그리 서럽다. 한강물이 강화도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것. 추천사에 보면, “인간은 왜 다른 인간과 접촉하려 하는가? 왜 접촉하고자 욕망하는가? 왜 접촉에 약한가? 이에 대해 모리스는 ‘접촉은 인간이라는 동물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기술.’이라고 말한다. 사랑에 대해 많은 해석과 설명이 있었지만 ‘인간’이라는 ‘동물’의 관점에서 논한 것은 모리스가 처음일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은 대단히 자극적이다. 인간의 친밀한 행동을 동물학적 방법을 통하여 낫이 뜨거울 만큼 적나라하게 분석하고 있다.”라고 쓰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선생님의 안강安康을 빌어 마지않는다.

저자는 서문에 “내가 말하는 친밀한 행동이란 두 사람 사이의 육체적인 접촉을 말한다. 악수와 성교, 등을 툭툭 두드리거나 뺨을 찰싹 치는 행위... 이 책은 이러한 보디터치body touch의 본질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내 이야기는 동물행동학과 관련해 훈련을 받은 동물학자가 취하는 관찰과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 이뤄진다”라고 썼다. 아무튼 보통 사람이 사람을 보는 것과는 다르게 동물의 행동animal behaviour과 연계시켜 보고 있는 것이 특이하다. 그것도 사람 몸의 모든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를 보는 각도도 보통사람들이 보는 것과 판연히 다르다.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심리학이라면 겉으로 들어난 행동(특징)을 관찰하는 것이 행동학行動學, ethology이 아닌가.

이 책은 모두 9장으로 나뉜다. ① 친밀성의 바탕은 어머니의 자궁子宮이나 탄생에 있고 ② 성적인 친밀성을 향한 유도를 위해 신체와 관련된 신호들이 있으니, 궁둥이 허리배 가슴 어깨 눈 킁 머리카락 등 몸의 모두며 ③ 성적

친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12단계가 있고 오르가슴도 그 중의 하나요 ④ 사회적 친밀성을 나타내기 위해 박수 포옹 팔짱끼기 등 두드리기 손 흔들기 손잡기 키스 등이 있으며 ⑤ 특수한 친밀성에는 머리손질 출산 댄스 마사지 등이 있고 ⑥ 친밀성의 대체물로는 애완동물을 ⑦ 물질에 대한 친밀성으로 담배피우기 먹거리 입을 거리 가구 성적흥분의 대용물을 들고 있으며 ⑧ 자기 친밀성으로 자기위안이거나 마스터베이션(수음행위)을 들었고, 마지막장에서는 친밀성을 향한 회귀로 인간은 전면적인 애정을 요구한다고 끝맺고 있다. 한마디로 인간의 친밀한 행동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구석구석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모리스의 안목眼目이 아연 무섭다. 그가 쓴 서문의 마지막 글이 인상적이다. “나는 이 작업을 하면서 사견私見을 보류하고 동물학자의 객관적인 눈으로 관찰한 인간행동을 그리려 노력했다”고. 필자도 동의하는 바다. **한문**